

| 21일 Market Index | |
|--------------------------------|---------------------------------|
| 코스피 7815.59 (+606.64) | 코스닥 1105.97 (+49.90) |
| 금리 (연이자율) 3.753 (-0.007) | 환율 (원/달러) 1505.00 (-1.80) |

대형마트
의무휴업·심야영업 완화
국회 테이블 올렸다
04

“성과 배분, 삼성처럼” 삼성전자 8% ↑... 그룹 시총 2000조 ‘훌쩍’

인건비 상승 초비상

‘n% 성과급’ 뉴노멀화 우려

삼성전자 노사가 정부의 막판 중재로 극적 합의를 이뤘지만 반도체에 불어온 ‘n% 성과 배분’ 바람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과거 국내 대기업 노사는 기본급 인상과 복지 확대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면 이제는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노동자와 어떻게 배분할지를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게 됐다.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 짓지 못한 자동차와 조선, 정보기술(IT) 등 대기업 노조가 높은 성과급을 요구하며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을 한 시간여 앞두고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합의에 따라 올해 반도체(DS) 부문 임직원들은 최대 6억원 가량(세전, 연봉 1억기준)의 성과급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관련기사 3·4면>

삼성전자, 파업 한시간 전 ‘합의’ 연봉 1억 DS임직원, 성과급 6억 현대차·HD현대·한화에어로 임단협서 성과급 골자 인상 요구

올해 적자가 유력한 비메모리 부문도 최소 1억6000만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노사는 OPI(성과인센티브)와 DS 부문에 대한 특별경영성과급으로 구분해 성과급을 지급기로 했다.

OPI는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에 따라 지급하고,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사업성과의 10.5% 재원으로 하며 쟁점이었던 상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 중 40%를 반도체 부문 전체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60%를 반도체 부문 사업부별로 나눈다.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한다.

이처럼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일정 부분의 성과급 지급을 골자로 한 노조의 요구는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최근 현대차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 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직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담은 올해 임협 요구안을 사측에 보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19일 4차 교섭에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지만 인건비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며 “글로벌 탑 3 완성차 업체에 맞는 성과 분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완성차 업체는 미국 관세와 중동 전쟁 여파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대외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회 조합원들이 지난 20일 경기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시스

약재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경우 더욱 심각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

HD현대중공업 통합 노조도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 상여금 100% 인상, 영업이익 최소 30% 공정한 성과 배분 등을 골자로 한 임금인상 요구안을 지난 20일 사측에 전달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HD현대일렉트릭처럼 성과급 상한제 폐지를 주장하는 등 성과급 제도 개혁의 목소리는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성과급은 반도체 업황의 특수성과 개별 사업부로 분리했지만 자동차나 조선 등 다른 산업에는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다른 산업에서 같은 방식으로 적용할 경우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황이 나빠졌을 때 이를 다시 낮추는 과정에서 노사간 더 큰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사례는 향후 노조 요구사항의 기준점이 될 수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다만 개별 기업 및 업종별로 임금체계와 경영환경 등이 모두 상이해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 노사의 합의사항이 전 산업으로 확산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규모가 큰 대기업이나 제조업 등과 달리 비교적 업력이 짧고 직원들 연령대가 젊은 층에 속한 IT업계는 분위기가 다르다. 카카오는 노사간 성과급 체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카카오 노조는 영업이익 대비 15%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으며 창사 이후 첫 분사 파업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영업이익 30%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공동고집단은 성과급과 관련해 “영업이익 30% 기준은 사측의 시혜가 아니라 노동의 피함에 대한 정당한 지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사측은 “경영 성과의 분배일 뿐 임금이 아니다”며 노조 요구에 선을 그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18개 상장사 시총 합산 2352조
신한투자 “삼정 목표가 55만원으로”
물산·전기 13% 상승, 계열사도 강세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그룹사 시총액 합산액도 2000조원을 넘어섰다. 삼성 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잠정 합의를 이뤄내면서 투심이 풀린 영향이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 그룹 18개 상장사의 시총 합산액은 2352조 123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거래일 대비 8.52% 급증했다.

삼성전자는 8.51% 급등하면서 시총이 1750조 9604억원으로 불어났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노사가 전날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점과 함께 미국 증시 상승, 원달러 환율 하락, 국제유가 안정 등 우호적인 대외 환경이 투자심리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태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삼

성전자 목표가를 55만원으로 올리면서 “노사 관련 우려 해소 국면 진입에 따라 밸류에이션(평가가치) 정상화를 반영한다”며 “메모리 가격 추가 상승, 장기 계약에 따른 안정적 실적 가시성 확보, 주주환원 강화 등도 기대된다”고 했다.

삼성전자 상승세와 장밋빛 실적 전망에 그룹 주요 계열사들도 동반 강세를 보였다.

지주사 성격의 삼성물산은 12.96% 급등했다. 시장에서는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 전자 지분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삼성물산이 보유한 상장사 지분 가치는 총 118조 662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삼성전자 지분 평가액이 67조 5330억원에 달한다. 사업 부문의 경우 본업을 넘어 원전 관련 수혜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다. 삼성물산은 현재 베트남·사우디아라비아·루마니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

MR) 수주를 추진 중이다.

삼성전기는 13.46% 급등했다. 삼성전기는 전날(20일) 글로벌 반도체 업체에 실리온 커패시터를 공급하는 1조 5570억 원 규모의 단일판매·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2년간, 지난해 매출액의 13.8%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창민 KB증권 연구원은 “실리콘 커패시터 실적 성장 여력이 추가돼 향후 5년 영업이익 연평균성장률(CAGR) 추정치를 기존 53%에서 61%로 올린다”면서 삼성전기 목표주가를 14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14% 상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34% 올랐고,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각각 13.78%, 4.24% 올랐다. 삼성E&A는 중동 재건 사업 기대감에 8.23% 상승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21일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 담장에서 서울시선관위 직원들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벽보를 붙이고 있다. /뉴스시스

유권자 표심잡기... 여야 ‘13일간의 레이스’ 돌입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시작
李 정부 첫 전국단위 선거 ‘의미’
서울·부산·경남·강원 등 관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부터 시작됐다. 여야 정당과 후보자들은 내달 2일까지 13일간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에 돌입했다. 여야 지도부 역시 이날부터 현장을 누비며 후보들을 지원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치러지는 첫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2년 뒤 총선을 포함한 향후 정치 지형을 가늠할 풍향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서울(정원오·오세훈), 부산(전재수·박형준), 경남(김경수·박완수), 강원(우상호·김진태), 충북(신용환·김영환), 충남(박수현·김태흠) 등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와 현직 지지체장인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어 관심이 높아졌다. <관련기사 6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영남을 포함한 ‘전국적 압승’을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게 목표이며, 야당인 국민의힘은 중도층 표심을 공략해 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여야 지도부는 일제히 현장을 향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수도권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해 ‘캐스팅 보트’로 분류되는 충청권으로 향했다.

정래대 민주당 대표 겸 6·3 지방선거 총괄책임자 대우원장은 이날 첫 일정으로 서울에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를 지원했고, 경기도 성남에서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충남에선 박수현 충남지사·김영빈 국회의원 후보를 만나 선거 유세를 도왔다. 정 대표는 서울을 첫 지원지로 택한

이유로 “오세훈의 서울을 이제는 끝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수도권을 첫 일정으로 정했다. 그는 이날 자정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인근에 설치된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의 단식장을 방문했다. 장 대표는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도출 사실을 알리며 양 후보의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이어 장 대표는 이날 오전에는 대전, 오후에는 충남으로 이동하여 선거 운동을 전개했다.

한편 이날 정 대표와 장 대표는 충남 공주상신시장에서 마주쳤다. 장 대표는 지원 유세 중이었으며, 정 대표는 충남지역 후보들의 지원 유세를 마친 후 시장을 돌아보고 있었다. /서예진 기자

김보민·박경수 인턴기자 syj@



메트로 한줄뉴스



▲이 대통령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엄정 실태 파악·안전 점검 지시”
▲정원오, “안심주택” 전세 사기 피해 청년 만나 “원래 지위 회복 방안 검토” /사진 뉴스시스

▲與 “이스라엘군 나포 韓 활동가 무사 귀환 결정 환영”
▲강훈식, 다음달 초 캐나다 특사 방문...잠수함 수주전 막판 총력

▲조국혁신당, 전북 찾아 “일당 독점정치 깨야... 호남, 與자판기 아냐”
▲국방부, 첨단국방 피치데이 개최...로봇·AI 민간 혁신기술 확산